

## 민들레 피리를 읊조리며

Recital of a Dandelion Pipe

**김현섭** Kim, Hyon-Sob  
정회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Professor, Korea University  
archistory@korea.ac.kr

이번 글은 꼭 신변잡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꼭 신변잡기적이지 않더라도 딱딱한 논문 투의 글 말고, 좀 누구의 마음에도 쉬이 다가갈 수 있는 정겨움이 깃든 그런 글 말이다. 공부 좀 했다 싶으면 괜스레 고준담론만을 읊조리기 십상이나, 그 사유의 농도가 짙어지면 오히려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반짝이는 글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와는 좀 먼 이야기일지언정 그리 마음 먹으면 한 걸음은 더 거기 가까워지겠지 .....

지난 2월 말, 우연히 방청한 한국도코모모 창립총회이고 윤일주 교수를 기념하는 심포지엄과 겸해 열렸다. 심포지엄 내용도 의미 있었지만, 내게는 기념품으로 받아 온 작은 시집이 더 큰 소득이었다. 윤동주와 윤일주 형제의 동시집 《민들레 피리》. 시인 윤동주(1917~45)를 모르는 이는 없으리라. 그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에 실린 〈서시〉는 우리 모두의 애송시 아니던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일제하에 그가 정말 이 시구처럼 살다 스물아홉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음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윤일주(1927~85)라는 건축학자 동생이 있었음을, 나는 대학 진학 후 한참을 지나서야 알았다. (그 아드님도 건축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말이다.) 또 윤일주 선생 역시 시인이었음도 꽤 근래에야 인식한 바다. 그러니 《민들레 피리》는 문학계와 건축계가 모두 관심을 가질만한 작품집일 테다.

중고등학교 시절 문학소년입네 품 잡지도 못했지만, 나는 꽤 시를 읽고 외웠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요즘말로 ‘썸 타는’ 그녀를 그리며 유치환의 〈행복〉을 가장 즐겨 암송했던 것 같고, 또 다른 소녀가 여러 색의 파스텔로 엮서 바탕을 칠한 뒤 적어준 괴테의 〈첫사랑〉에도 ‘심쿵’했었다. 그러면서 왜 교과서 시의 ‘님’은 죄다 ‘민족’과 ‘국가’만으로 해설돼야 하는지 불평을 늘어 놓기도 했으니, 이게 나만의 얘기일까. 뭐, 사춘기 소년의 감수성이 꼭 이성에 대한 로망에만 국한됐던 것은 아니다. 용혜원의 〈친구야〉를 읽으며 친구와의 우정을 다짐하기도 했고, 작자미상의 〈시간〉이 말하듯 “이 짧디 짧은 토막시간에 삶의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으며, 푸쉬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우리네 입시체제에 오버랩시키며 대입 후 새롭게 펼쳐질 삶을 꿈꾸기도 했다.

이런 풋내기 문학소년의 센치한 감성을 윤동주의 시가



《민들레 피리》  
윤동주·윤일주 형제 동시집  
조안빈 그림  
창비(2017.12)

빛겨갈리 만무하다. 맹자가 말하는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중 우선인 “앙불괴어천(仰不愧於天)”과 일치하는 <서시>의 첫 구절 못지않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한” 그의 어린 마음은 내 마음으로 고스란히 감정이입 됐다. 그리고 <별 헤는 밤>에서 별 하나에 불러본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은, 추억과 사랑과 시와 어머니든 소학교 때 함께 했던 소녀들의 이름이든, 가슴 한편에 아련하고 깊은 자욱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 율조림이 암울한 시대의 그림자 속에서 시인 자신의 무덤마저도 예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허나, 율동주의 시가 시대적 우울만을 그렸던 것은 아니다. 그 속에서도 그리움과 해학이 묻어나는 시가 많았는데, 그의 동시가 그랬다.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몽기몽기 웨인 내굴[연기] 대낮에 솟나”로 시작하는 <굴뚝>이 한 예다. 또 내가 특별히 기억하는 동시는 <만돌이>였다. “만돌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전봇대 있는 데서/ 돌재기 다섯 개를 주웠습니다./ 전봇대를 거누고/ 돌 첫 개를 뿌렸습니다./ -딱- / 두 개째를 뿌렸습니다./ -아뿔싸- [...] 다섯 개에 세 개 ..... / 그만하면 되었다./ 내일 시험 다섯 문제에 세 문제만 하면- / 손뚱아 구구를 하여 봐도/ 허양 육십 점이다./ 볼 거 있나 공 차러 가자.”

《민들레 피리》에는 율동주의 동시 34편이 1부에 율일주의 동시 31편이 2부에 실렸는데, 여기서 <굴뚝>과 <만돌이>를 다시 만난 건 큰 반가움이다. 대개의 동시가 그렇지만 두 형제의 시구는 모두 맑고 깨끗한 동심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시집 전체의 제목이 된 율일주의 <민들레 피리>(92~93쪽) 역시 그렇다. 제목에서 만도 샛노란 꽃잎과 초록의 잎사귀, 그리고 하얗고 둥근 씨 무지의 시각적 이미지가 강렬하며, 이에 더해 피리소리의 청각적 이미지가 어른거리지 않는가. 한하운의 <보리피리>가 고향과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며 “피-리 널리”하고 울었는데, 민들레 피리는 어떤 음을 발할까? 어여쁜 꽃을 생각하면 좀 더 밝고 청아한 소리일 듯한데, 시인이 시구로 표하지 않았으니 각자의 심상에 맡길 수밖에 ..... 단, 너무 일찍 세상 떠난 형을 그리며 시인이 민들레 피리를 불었으니, 그 아름다울 가락에는 분명 애잔함도 묻어났을 것이다.

민들레 피리

햇빛 따스한 언니\* 무덤 옆에  
민들레 한 그루 서 있습니다.  
한 줄기엔 노란 꽃  
한 줄기엔 하얀 씨.

꽃은 따 가슴에 꽂고  
꽃씨는 입김으로 불어 불니다.  
가벼이 가벼이  
하늘로 사라지는 꽃씨.

-언니도 말없이 갔었지요.

눈 감고 불어 보는 민들레 피리  
언니 얼굴 환하게 떠오릅니다.

날아간 꽃씨는  
봄이면 넓은 들에  
다시 피겠지.

언니여, 그때엔  
우리도 만나겠지요.

*\*언니: 동성(同姓)의 손위 형제를 부르는 말.  
《민들레 피리》 편집자 설명.*

《한국양식건축80년사》(1966), 《한국현대미술사(건축)》(1978) 등의 저술로 한국 근현대건축사학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율일주 선생의 동시를 그의 형 율동주 시인의 동시와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건 우리 건축인들에게 큰 행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전문 일러스트레이터의 정겨운 삽화마저 가미되었으니 한 편 한 편 읽는 재미가 더 쏠쏠하다. 지난 20~30년에 걸쳐 점점 무뎌져 버린 내 감성이 덕분에 조금은 운기를 얻게 된 것 같다. 마음을 다스리고플 때, 옆에 두고 한 편씩 꺼내 읽어보자. □